

## 27. 너희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여라... 나의 평화와 평온함을 받아라.

2015.03.24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평화. 나의 신부인 너에게 평화를 말해. 너의 마음은 염려와 기대로 가득 차 있고, 여기 저기에 많은 매듭이 묶여 있어. 오 너가 내 안에서 안식하고 나의 평화를 가지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나는 너가 그 염려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와 평온함과 안식을 전달하기를 원해.

(클레어) 주님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나의 품에 안을 때, 너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나의 평화가 너의 안에 자리를 잡을 거야. 그런 후에 너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 평화를 가져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의 메시지를 기록하기 전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 너는 지금 무엇을 느껴?

(클레어) 평화요.

(예수님) 그것이 정확히 맞아. 이 평화와 평온함은 나에게서 오는 거야. 매일 이 수준에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용하여 평화를 사역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은 나에게 중요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적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인터넷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모든 위협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특히 기독교인들이. 나의 백성들은 나와 나의 평화를 찾아야해. 너의 유튜브 채널은 나에게서 평화를 찾는 것에 관한 채널이야. 나는 그들의 피난처이고, 나에게 와서 나의 품에 안기고, 내 안에서 안식하는 거야.

클레어, 그들은 너무 많은 일들, 결정들, 두려움들, 염려들로 괴로워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나는 약속할 수 없고, 매일 문제들이 생겨. 하지만 그들은 나의 분노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나는 약속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이것 저것 하는 것에 너가 어떻게 묶이게 되는지 알고, 그것들은 정말 복잡해보여. 때때로 너는 나와 함께 여기에 있기 위해 거미줄에서 나가는 길을 찾기위해 싸워야해.

많고 많은 나의 신부들이 그들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고, 묶여있는 그들의 시간을 잘라내지 않았어. 정말 많은 신부들이. 나는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해. 나는 그들이 천국에서 살게될 삶처럼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기 시작하기를 원해. 그래, 그들이 참여해야할 의무들이

있어.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재평가한다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들의 시간을 적어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거야.

쇼핑을 가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는 그 상태를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어. 마침내 끝내야 할 때까지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마트나 상점은 조용한 시간에 내가 전하는 깊은 평화를 매우 파괴하고 지장을 주기 때문이야. 걸보기에 무해해보이는 TV프로그램, 쇼핑이든, 잡지이든, 세상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머릿속을 맴돌고 평화를 빼앗아가는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어.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해. 생각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제한되어있고, 만약 나의 임재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적인 본성으로 약화되어진다면 그 생각을 어지럽혀서 내가 그곳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클레어)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저희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 그래, 하지만 그 휴식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만들어라. 나무의 새싹들, 솟아오르는 풀들, 강아지와 고양이의 장난어린 모습을 보면서 들판을 산책하는 것과 같이. 장거리를 가는 계획으로 너희들자신을 어려움에 빠지지말게 해라. “이것을 고쳐야해, 저것을 고쳐야해.”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영적인 평화를 고갈시키는 프로젝트로 너희들을 끌어들이는 악마들의 책략이야. 그들은 매우자주 마트를 가게하거나 인터넷쇼핑을 하도록 요구해. 영적인 사람에게 이것은 정말 매우 해롭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는 그의 악마들을 시켜서 그 영혼이 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하도록해. “너는 책임감이 없어. 너는 작년에 그것을 끝냈어야해.” 등등.

나는 너희들의 생각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해. 어리석은 처녀들의 문제 중 일부는 그들이 세상에 너무 얽매어 있어 그것이 그들의 등불에 쓸 기름을 가져오는 일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들은 “음, 여기서 잠시동안 있다가 다시 일하러 갈 거야.” 라고 생각해.

그들의 생각은 나와 나의 의제가 아니라, 집에서 해야 할 어떤일들이 그들을 기다리는데 있어. 마르다와 정말 비슷해.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현명한 처녀들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 그것은 시간낭비가 아니라 축복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은 오직 나였고, 다른 모든 것들은 오직 그들의 짐들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늦어질지도 모르겠어, 좋아, 그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복해했어.

내 사랑아, 나는 심각해. 나는 이 개념을 전달하고 싶어. 어리석은 처녀들은 육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의 일들에 사로잡혀서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어. 너도 그런적이 있어.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평생 이 문제와 고군분투하였고, 너자신의 거의 대부분을 극복한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야.

(클레어) 그것은 정말, 매우 사실이에요. 저는 봄철을 학수고대하곤 했어요. 심고, 가꾸고, 좋아보이게 만들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미루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역에 정말 몰두하고 있고, 그것이 오직 제가 신경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트에 가는 것은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싫어해요.

(예수님) 지금 너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

(클레어) 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너는 협력하였어.

(클레어) 제가 알 수 있는 것 한가지는 적들은 저를 봄맞이 대청소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이예요. 청소에 더 깊게 끌어들이게하려는것 등등이요. 그리고 저는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너가 함정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도와줬어.

(클레어) 네, 정말로 이것들은 함정들이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할 시간이 없어. 너희들의 생각을 천국과 내가 가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에 집중시켜야해. 나의 신부들아, 선을 그어라. 나는 가고 있어. 나에게서 주의를 빼앗기는 어떠한 세상적인 노력에도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들의 눈을 계속해서 보상에 주시해라. 군인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아. 직무상 필요한 일만 해라. 내가 필요한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체력이나 집중을 고갈시키는 프로젝트들에 너희들자신을 내던지지 않는 '꼭 필요한 일'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약해진 상태에 있을때 적들은 주변에 있어. 늑대들이 어느 양이 가장 취약해보이는지 그 양떼를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악마들도 너희들을 공부하고 너희들이 피곤하고, 너무 많이 일해서 지칠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심, 두려움, 불안, 불신으로 너희들을 덮쳐. 너희들자신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경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유지하고, 너희들의 눈을 떠 너희들에게 놓여 진 어떠한 함정들 위로 걸지 말아라. 내가 함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을 지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것은 내가 아니야.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쇠약해져 너희들을 죄에 빠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지치게 만드는 악마들의 유혹이야.

또 다른 함정은 “오, 나는 그것을 해야만해.”야. 너희들이 미루고 있었던것.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를 진정으로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먼저 그곳에 다이빙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클레어, 이것이 내가 너의 집앞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야. 이것은 너를 피로로 쓰러지게 만드는 큰 유혹이야. 지금까지 너는 현명하게 그것을 피하고 우회하였어. 그 이메일은 모든 종류의 ‘해야할 일’을 펼쳐주는 트로이 목마였어. 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은 나와 너의 사역에서 멀어지게 하는 큰 유혹이었어.

너는 침착하고 신중했어. 나의 신부들아,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야. 침착하고 신중해라. 상황을 평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빨아들이고 기도에서 멀어지게하는 함정이 아닌지 확인해라. 지금 너희들 중 어느누구도 떠내려갈 여유가 없어. 나는 나에대한 너희들의 완전한 집중이 필요해.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너희들은 혼자아 아니야. 나의 영이 너희들의 컷가에 속삭일 거야.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 안에서 견제를 느낄 거야. 그것에 순종해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의 길을 따라가라.

세상에는 이런 저런 일을 하라는 끝없는 권유가 있어. 어리석어지지 말고, 세상은 세상에 묻히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해. 시간은 끝나가고 있고 나는 가고 있어. 너희들의 문 앞에서 세상적인 피로에 무너지지 말아라. 경계를 유지하고 나와 나만을 위한 너희들의 체력과 시간을 절약해라.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